

5G 대응 신산업 발굴 연구용역 착수

도, 오늘 역점산업에 5G+ 연계 가능 비전 전략 마련
 상용화 조기 확산 위한 신산업 기반 서비스모델 제시

전북도는 5G 시대를 맞아 전북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도의 역점산업 중 어디에 적용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장기 비전 전략 마련을 위해 8일 영산회의실에서 '5G 대응 신산업 발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정부의 5G 플러스 전략에 맞춰 전북도 핵심산업과 연계한 5G 상용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산업 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용역의 추진배경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상용화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5G+ 종합전략을 수립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5G 전략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7월에 자체적으로 5G 상용화 대응 방안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에 실시하는 전북도 5G 대응 신산업 발굴 연구 용역을 통해 전북도의 중점산업에 5G 기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 신사업 발굴 ▲ 5G상용화 대응 추진단 연계 협력을 통한 정부 5G+ 중점과제 대응 가능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제시 ▲ 전북도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5G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및 실증환경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5G 용역사업을 통해 발굴된 전략과제는 2020년부터 정부의 추진방향과 연계한 신규 핵심과제 발굴·기획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등 재원 확보 방안도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식
 2019. 10. () 전라북도청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확대 7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와 이호경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송체계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주 기령당 기로연 행사 개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전주 기령당에서 창립 제42주년 기로연 행사가 7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철 전주 기령당 당장을 비롯한 회원 100여명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철 당장은 "42년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경로문화를 향상시키고 계승하는 기령당 당장으로서 앞으로도 기령당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기령당이 전주에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전북 대도약 정책

도, 내달 8일까지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 도정 반영

전북도는 도민과 함께 전북 대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북 대도약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내가 꿈꾸고 함께 만들어 가는 전북 대도약'이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미래발전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응모는 전북도 정책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전북 대도약정책'을 발

굴하고 우수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금상 150만원 등 총 600만원을 시상하고, 결과는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서식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http://www.jonbuk.go.kr-도정정보-알림마당-공고/고시) 및 전라북도 정책소통플랫폼 '전북 소통대로'(http://policy.jb.go.kr-공모제안)에 게시되어 있고, 문의는 대도약기획단(063-280-3922)으로 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전북 대도약 '도민 정책참여단'을 통해서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9월부터 진행 중인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2040) 수립 용역' 등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전북의 중·장기적 미래구상과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미래 전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공모에 도정의 주인인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2019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무형유산·시민생활 이야기

국립무형유산원서 10~12일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이 주최하고 유네스코야테 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금기형)가 주관하는 '2019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이 오는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다.

- 결속과 존중'은 무형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사회 내 갈등을 해소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형유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회 '시민을 향한 주제로 - 무형유산 진흥 활동과 정책의 방향'이 진행되어, 무형유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할 예정이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의 주제는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이다. 전 세계 20여 개국 40여 명의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11일 열리는 제3부문 '개개인의 힘을 신다 - 탐구와 배움'은 무형유산의 가치를 개인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조명하는 자리로, 무형유산에 내재된 지식과 지혜로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에서 힘을 발휘한 각종 해외 사례가 소개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토론회 '시민을 보호 주제로 - 무형유산 교육과 연구 활동의 방향'이 열려 유산들을 더 적극적으로 무형유산으로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행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열우마루 대공연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개막식에서는 반기문 제8대 유엔(UN) 사무총장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생활, 그리고 무형유산'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특별강연에서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달성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기조발표로는 마크 제이콥스 벨기에 안트워프대학교 교수가 '살아있는 유산 - 풍요, 통합, 그리고 역량강화'를 주제로 무형유산이 지니는 범인류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어서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의 기조발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에서는 한국인의 일상 속에 스며있는 친숙한 무형유산 활동을 소개하고 다각도로 살펴본다.

10일부터 1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0일 발표는 제1부문 '삶을 풍요롭게 하다 - 향유와 참여'를 주제로 한다. 무형유산이 개인의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형유산을 즐길 때 느끼는 가치를 전달하여 일반인의 관심을 끌어낸 해외 사례들이 소개된다.

제2부문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는 결속과 존중'은 무형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사회 내 갈등을 해소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형유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회 '시민을 향한 주제로 - 무형유산 진흥 활동과 정책의 방향'이 진행되어, 무형유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할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제3부문 '개개인의 힘을 신다 - 탐구와 배움'은 무형유산의 가치를 개인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조명하는 자리로, 무형유산에 내재된 지식과 지혜로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에서 힘을 발휘한 각종 해외 사례가 소개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토론회 '시민을 보호 주제로 - 무형유산 교육과 연구 활동의 방향'이 열려 유산들을 더 적극적으로 무형유산으로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특별강연에서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달성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기조발표로는 마크 제이콥스 벨기에 안트워프대학교 교수가 '살아있는 유산 - 풍요, 통합, 그리고 역량강화'를 주제로 무형유산이 지니는 범인류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어서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의 기조발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에서는 한국인의 일상 속에 스며있는 친숙한 무형유산 활동을 소개하고 다각도로 살펴본다.

10일부터 1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0일 발표는 제1부문 '삶을 풍요롭게 하다 - 향유와 참여'를 주제로 한다. 무형유산이 개인의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형유산을 즐길 때 느끼는 가치를 전달하여 일반인의 관심을 끌어낸 해외 사례들이 소개된다.

제2부문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는 결속과 존중'은 무형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사회 내 갈등을 해소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형유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회 '시민을 향한 주제로 - 무형유산 진흥 활동과 정책의 방향'이 진행되어, 무형유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할 예정이다.

10일부터 1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0일 발표는 제1부문 '삶을 풍요롭게 하다 - 향유와 참여'를 주제로 한다. 무형유산이 개인의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형유산을 즐길 때 느끼는 가치를 전달하여 일반인의 관심을 끌어낸 해외 사례들이 소개된다.

제2부문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는 결속과 존중'은 무형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사회 내 갈등을 해소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형유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회 '시민을 향한 주제로 - 무형유산 진흥 활동과 정책의 방향'이 진행되어, 무형유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할 예정이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리브TV** ch.224

Btv ch.285

U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송주빌딩5F